

# 眼科에 대한 文獻上에 발표된 發展史

姜忠模 · 尹暢烈\*

## I. 緒 論

東醫學은 悠久한 歷史속에서 數많은 醫家들의 研究와 經驗이 蓄積된 醫學 知識이 疾病의 豫防과 治療에 있어 體系的인 規範과 活用の 原則으로 成立되어 왔다

東醫學에서도 古典에 根據를 두면서 새로운 治療法이 講究되어야 하는 것은 當然하여 卽 患者를 治療함에 있어 먼저 治療法이나 적응증을 嚴密히 檢討한 후 決定되어 져야 한다.

各各의 全一概念의 生命體의 活動을 分析하여 그 各各의 患者에게 有利하게 作用하도록 生命全體에 對한 元氣와 抵抗力을 키워줌으로써 治療에 一助하도록 하는 것은 醫師 自身の 經驗의인 各種 疾患에 對한 깊은 研究와 臨床이 없이는 不可能하다.

東洋學의 發展과 東洋學의 歷史와 더불어 東洋學도 그時代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變貌해왔듯이 여기에서 言及할 眼科도 例外는 아니어서 各時代의 眼科學術의 特點은 어떤 것인지 그 重要性을 眼科 文獻을 重心으로 比較하여 各時代의 發展 概況과 特點을 敘述하는 形式으로 쓴다.

東醫學의 各科는 數많은 醫家들의 豊富한 知識과 鬭爭의 過程中 이루어졌는데 異意도 없다 하겠다. 其中 眼科는 臨床家들의 運用에 있어서 內科, 雜病等에 比하여 그 쓰임이 狹小해서 인지, 그 意가 深奧해서인지, 쉽게 接해서 研究하고 運用함에 疏忽한 것은 事實이다 하겠다.

먼저, 眼科의 各述을 研究함에 앞서 發展史를 살펴봄으로써 그 大綱을 그려보는 것을 이번의 目標을 삼는다.

## II. 本 論

漢醫學中 眼科의 發芽時期는 上古, 商, 周, 秦漢

등을 거치는 동안 一症一藥으로 眼症治療를 하던 時代를 지나 解剖, 生理, 病理, 辨證의 方向으로 發展되어서 文字出現 以後 眼病의 知識의 蓄積을 記載하기 始作하여 수많은 書籍에 論述이 登載되어 豊富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1. 初期 書籍 文獻에 記載

河南安陽殷墟에서 出土된 武丁時代의 甲骨文祔卜, 辭中에 記載된 “疾目”; 眼病失明 曰 “喪明”, “貞王弗疾目”, “大目不喪明” 등으로 眼病 最初 文字로 記錄되고 植物 및 礦物의 眼病의 作用이 記載된 先秦 左地 理書인 《山海經》中 記錄 藥物 100 多種中 眼病 藥物이 7種이며 《山海經·中山經》 “又東 三十里, 曰 泰室之山, 其上有木焉, 葉狀如梨而 赤理, 其名曰 楸, 服者, 不妬, 有草焉, 其狀如朮, 白華黑實, 澤如 櫻輿, 其名 曰 苴草, 服之不味, 上多美石”

또 동쪽의 30리 가면 태실상이 있다. 산위에는 나무가 있다. 잎의 모양은 배나무와 비슷하고 붉은 줄기가 있다. 그 이름은 육목이라 한다. 꽃이 희며 열매는 검고, 영옥처럼 윤택이 있다. 그 이름은 요초라 한다. 이것은 몸에 지니면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 산위에는 아름다운 돌이 많다.

여기서의 瑤草의 언급과 外 《詩經》과 《淮南子》에도 眼科 藥物이 記載되어 있다.

眼部 病症의 認識의 시작은 目盲一病으로 《詩經》과 《尚書》에 記載된 眼部病床과는 分別하여 採用하지는 않았고 다만 “瞶”<sup>1)</sup> “瞶”<sup>2)</sup> “瞶”<sup>3)</sup> 等 名詞로 區分 되며 그 근거 春秋時期에 이르러서는 盲人을 稱하여 瞶人 이라 하고 예를들면 《書經》에 “瞶泰” 《詩經》 “瞶瞶秦公”, 《毛傳》 “有眸子而無見曰瞶, 無眸子 曰瞶. 《檀子》” “子夏喪其子而喪其明”은 舜帝의 腫病을 記載되어 있고

《管子》 “肝發爲目, 腎發爲耳”는 眼의 生理方

1 눈멀 몽 , 소경 몽

2 소경수

3 눈먼 고 , 악사 고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管子》“肝發爲目，腎發爲耳”는 眼의 生理方面의 記錄이고

《老子 章十二 檢欲》“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聾，五味令人口莢。馳聘敗曠... 取此”<sup>4)</sup>

《墨子》에는 試用 眼藥物 治療가 記載되었고, 《荀子 非相中》“湯偏，曉舜參牟子”라는 조문이 있고

《史記 項羽本紀》“太史公 曰 吾聞之周曰 舜目蓋 重瞳子. 又問項羽亦重瞳子. 羽豈其苗裔 邪何與之暴也”<sup>5)</sup>

여기서의 “項羽亦重瞳子”는 世界上 瞳孔의 異狀을 最早로 記載됨에 그 意義가 자못 크다 하겠다.

그의 漢代 許慎의 《說文解字》中 隳. 蒙. 盲等 30多種 《說文解字》“蒙爲重蒙也，一目不明也” “目少稱眇 臉緣炎은 目萎縮은 瞖”라는 意味로 認識되며 《釋名》“有眸子而失明，蒙蒙無所別也” “通視” “眸子明而不正”이라는 條門이 있어 그것을 더욱 발전을 보게 되었다.

또한 《史記 扁鵲列傳》에서 “扁鵲過 洛陽 聞周 愛老人，遂爲耳。目痺醫” 最早의 眼科醫生이라 하는데 意義가 있다 하겠다.

後이지만 《金匱要略》“記有黠，目泣和目不識人”라는 條門이 眼科 系統에 症狀로 表現된 글이다.

## 2. 初期 醫藥書籍中 眼病과 有關된 眼病 醫藥記載

春秋時代에 이르러서는 經驗의인 知識의 蓄積이 比較的 豊富하게 되었으므로 學術文化, 예컨대 天文, 曆算等에 相當한 發展이 있었으며, 陰陽五行說等의 學說이 初步의으로 形成되었다. 게다가 巫醫가 沒落하고 專業 醫師가 出現하는 등의 情況은 醫學理論의 漸次의인 形成과 創造에 重要한 條件이 되었다.

黃帝內經은 《內經》 以前の 缺乏된 臨床醫學資料의 空白을 메꾸어 주어서 이 時期의 臨床醫學의 情況을 比較的 明確히 理解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그 意義는 큰바, 《靈樞 大惑論》“五臟六附之精氣, 皆上注于目而爲之精, 精之窠爲眼”으로 眼의 臟腑, 經絡과의 關係, 解剖生理, 病因病機, 臨床證

候, 針刺療法等을 記述하여 眼을 크게 瞳子, 黑眼, 絡, 百眼, 釣束, 目系等 6部分으로 나누고 그中 眼部 病症은 目赤, 目痛, 目似脫 目眩暈, 視歧, 善泪出等 30여種으로 구분된다.

또한 內經中 眼病 治療 用針刺인 《靈樞·熱病》“目中赤痛. 從內眦始, 取之陰譎”로써 其一例로 삼는다.

眼科學中 眼과 臟腑 經絡과의 關係, 五輪, 八廓學說, 眼科의 其本理論은 內經의 基礎를 바탕으로 發展하여 그 資料의인 價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다. 또한 秦漢以來로 內外의 交通이 날로 發達하였는데, 特別한 것은 張騫과 班超가 잇달아 西域에 使臣으로 가서 실크로드를 다니면서 西藏의 紅花, 葡萄, 胡桃, 安石榴<sup>6)</sup> 大蒜, 胡麻, 苜宿<sup>7)</sup> 및 其他 藥材를 끊임없이 內陸으로 收入하였고 少數民族及인 地域의 犀角, 琥珀, 羚羊角, 麝香과 南海의 龍眼, 荔枝等도 漸次로 內陸의 醫家들에게 採用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當時 사람들의 藥物學 知識을 크게 豊富하게 하였다.

그러한 背景下에서 나온 《神農本草經》一書는 戰國 以來에서 東漢時期의 藥物 經驗과 醫學 知識에 對한 全般的인 總結이고 中國에 現存하는 最古의 藥物學 專門書로써 모두 365種의 藥物을 실고 있는데 그중 植物學이 252種, 動物藥이 67種, 礦物學이 46種이다. 365種의 모은 理由는 “法三百六十五度 一度應一曰. 以成一歲”라는 때문이고 眼科用藥物은 72種에 이르며 治療로써는 胞臉兩眦, 白睛, 黑睛 瞳神等 眼病과 全身性疾病의 眼部 症狀의 關係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했으며, 臨床에 있어서도 예를들면 主治 ; 青盲, 赤白膜, 眼赤痛 泪出 ; 鞠花, 主治 ; 目欲脫 淚出 ; 兔絲子, 白疾呂, 蔓荊子, 青箱子 充蔚子明目等 藥物로 治療가 確實해 지금도 使用되고 있다.

內經 以後로 東漢 以前の 臨床 醫學에 對하여 全面的인 總結한 書인 《傷寒雜病論》此書의 精微로운 論述로 因하여 中醫의 辨證論治原則이 確

5 내가 유럽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순은 눈 동자가 두 개라고 한다. 또 항우역시 눈동자가 두 개라고 하는데 혹시 항우는 순의 후에 아닐까. 얼마나 갑자기 흥기 하겠는가!

6 석류의 별칭

7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

4 본질본성으로 귀일한다.

立되어 表裏, 寒熱, 虛實, 陰陽의 八綱으로 구분하여 臨症時에 理法, 方藥의 原則을 삼았는데 眼科系統에서도 例外는 아니어서 예를들면 目赤, 目暈黃, 目暗, 目不識人等의 表現이 그러하다. 또한 “孤惑” 一病도 患者가 目赤如鳩眼, 咽喉及 前候陰에 潰瘍으로 現代에서는 베체트씨病이라 불리는데 眼. 口, 生殖器 3개 기관의 綜合病症으로 구별되어 清熱, 解毒除濕으로 治療케 된다. 이로부터 眼科전통적 局部 辨證과 全身辨證의 有機的 結合으로의 始發點이 되어 眼科 六經 辨證 理論으로 發展하게 된다.

### 1) 眼科 基礎 理論 發芽

#### (1) 生理方面

① <內經> “視萬物, 別黑白, 審長短

② <素問·氣交變大論> 曰 “是以象之見也, 高而遠則小, 下而近則大” 物象의 大小와 眼과 物體間의 距離와의 關係를 記述

③ <靈樞·邪客篇> “天有日月, 人有內目”은 天人應相의 觀點에서 이고

④ <靈樞·衛氣行篇> “平日陰, 陽氣 出于目, 目張則 氣上行于頭, 夜則氣行于陰, 而復合于目”은 眼 醒睜, 夜睡閉의 道理를 說明했다.

#### (2) 病因 病機 方面

① <素問·解微論> 風中于項, 入于腦 則腦轉目 眩及視岐는 外邪가 病이 되는 機轉이고

② <素問·臟氣法時論> “肝虛則 目眈眈無所見” <脉訣>中 腎虛, 腎實, 肝傷 三者等은 眼의 臟腑 病機 方面의 機轉이다.

### 2) 臨床 診斷 方面의 概況

① <內經>中 30餘種의 名稱과 症은 目盲, 目瞑, 目不知所見, 目不識人, 目昧, 目眈眈, 目不明, 目妄見, 瞶目, 目不合, 泣下, 泣出, 見風泣下, 目黃, 目青, 目赤, 目白, 目黑, 目似脫, 瞳子高, 目匡陷, 目內陷, 目運, 視氣, 戴眼, 目眇瘍, 目痛, 目內痛, 目赤痛, 目銳眦痛, 眦青, 漏 目下腫, 目瞶癢, 窩上微腫如新 臥起狀等等

② <神農本草經>中 多睜泪, 目翳, 目中淫膚, 眼赤白膜, 青盲目瞑, 夜視有精光等 新病名

③ <傷寒雜病論>에 記載된 20餘種의 全身性, 眼症 : 直視, 目瞑, 面目急身黃, 不識人, 目中不了

了, 睛不和, 目眩, 目赤, 從目出, 眼中生花, 其目正圓, 目不得閉, 目四眦黑, 兩目黯黑, 目如脫, 兩目浮腫, 目青面黑, 目睛暈黃, 目赤如鳩眼等 全身性 眼病은 많으나, 獨立의인 眼病의 意見은 적었다.

### 3) 臨床 治療 方面의 概況

南北朝以前에는 眼科 治療 方面에의 資料는 極小 <山海經>中 當邑, 冉遺之魚, 植楮, 蠶蜃, 鵠要, 蒸草, 鵠鬚等 七種의 眼病 治療 動植物性 藥材로 眼科의 最早의 食療 方面의 記載라 볼 수 있겠다.

<神農本草經>中 明目藥 57種, 利丸竅藥 16種, 治青盲藥 6種, 治目痛藥 11種, 治泪出藥 10種, 治目翳, 淫膚赤白膜藥 5種, 治目中赤腫藥 2種, 治傷眦藥 2種, 治目似脫藥 1種 治目瞑夜視有精光藥 1種 (隋朝 ~ 唐朝)

### 3. 兩晉及 隋唐 五代의 眼科의 急速한 成長時期

① 政治的으로서 南北朝 時代는 暗黑했으나 宗教, 思想, 藝 分野에서는 頂點을 이루고 魏晉때 竹林七賢 같은 隱遁主義者들 사이에 老子, 莊者의 無의 思想에 依據하며 社會의 拘束을 벗어나 自由스러운 論議, 즉 清談하던 風習이 계속되고 懷疑主義와 個人主義思想에 佛敎의 影響捲에 들어 번성하던 시기로 後世에 남아 있는 醫籍은 많이 있지 않지만 <隋書·經籍志>에 기재된 南北朝時의 <陶氏療目方> 及 甘潛之의 <療目眼方>는 가히 最早의 眼科 전문서적일 수 있으나 애석하게도 消失되고 內容은 알 수 없어 그로 인해 後世에는 큰 影響을 주지는 못했다.

또한 南北朝時는 魏晉이래로 統治階級 上層 人間에 清談을 崇尚하는 風潮가 나타나서 通說을 指倡하고 禮節을 蔑視하고 嗜酒放浪을 가장 좋은 생활이라 하고 또한 石藥을 服用하는 怪癖이 流行하였으며 服石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疾病이 發生하여 이른바 解石 散類의 藥方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晉朝時 <脉經> 王叔和一書로 그중에는 眼科의 類症을 鑑別하는 기초가 싹뚝이 보인다. 예를들면 目視眈眈이 腎實, 膽虛, 肝傷의 三種으로 區分되며, 目痛 또한 腎及膀胱俱實과 肝及 膽經氣 逆인지 구분됨과 目病의 脈像과 眼病의 症狀과 判斷과 病의 預後를 가름하는 方法等이 제시되어 있

어 後世醫家에게 많은 引用이 있었다.

其他, 皇甫謐의 《針灸甲乙經》 葛洪의 《肘後救卒方》, 龔慶宣의 《劉涓子遺方》 陶弘景 《肘後百一方》 등에 眼病의 針灸와 方藥이 記載되어 쓰이고 있다.

② 唐代는 政治的으로는 北朝를 繼承하였고 文化的으로는 南朝의 漢民族의 傳統을 憧憬하여 貴族文化를 이룩하였고 木版印刷가 開發되어 佛典을 많이 印刷 되었고, 道教, 佛教, 儒教가 結合되고 융화되어 發展을 거듭하는 바에 醫學도 그 例外는 아니고 眼科의 獨自性도 追求되어 갔다.

### 1) 眼科에 有關된 醫書

① 隋代 巢元方의 《諸病源候論》 一書는 現存하는 第一의 病因 病理의 전문서적으로 모두 67類로 나누어 1729種을 述했으며 本書의 最大貢獻은 疾病에 對한 記載가 廣乏하고 詳內細科하고, 病이 絶對多數를 차지하지만, 其他 外科의 金創一類 23種, 婦科 雜病 140餘種, 皮膚病 40餘種, 眼科病, 時氣病, 溫病, 婦人病, 小兒病等에 수록된 眼病도 10餘種이나 된다. 眼症과 全身疾病과의 밀접한 相關關係로써 “眼綜合病症”으로 記載되어 있어 예를 들면 有針眼候, 目風泪出候, 目赤痛候, 眼障翳候, 目珠子突出候, 目不能遠視候, 傷寒孤惑候 등으로 眼의 病原의 깊은 심도를 느끼게 하여 眼科에 있어서 眞一步한 면모를 느끼게 한다.

《內經》의 基本理論과 臨床治療를 密着시켜 比較的 系統的으로 많은 疾病을 詳細하게 그 疾狀을 描寫했을 뿐만 아니라 合理的이고 實際的으로 그 理論을 밝혀 唐以後 많은 醫書가 모두 直接으로 이 書의 原文과 論點을 引用했을 뿐만 아니라 宋代에는 必須科目으로 指定되고 國家考試 科目의 하나로 되어 그 重要性을 알수 있다.

② 唐代 孫思邈의 《千金要方》으로 唐以前의 歷代 著作의 主要 醫論, 醫方, 針灸等 基本內容을 包括하고 또한 處方, 用藥 等の 具體的인 方法과 服餌, 食養, 導引, 按摩 等の 養生法도 記載되고 심지어는 醫師가 어떻게 醫學을 배워야 하고, 어떠한 道德과 品格을 갖추어야 하느냐하는 問題까지도 論述했다. 이 冊은 中國最初의 臨床百科全書로써 모두 30卷이며 卷1은 習業, 精誠, 理病, 診候, 處方, 用藥等 一方的인 論述을 하고 卷2 ~ 4는

婦人科學, 卷5는 小兒科病, 卷6은 五官病, 卷7 ~ 21은 內科病 …… , 卷22 ~ 23은 內科病, 卷24 ~ 25는 解毒과 救急, 권26은 食養, 卷27은 養生, 導引, 按摩等 卷28은 脈診, 卷29 ~ 30은 明堂孔穴等 針灸治療를 論하고 全書는 모두 232門으로 나누었고 方論 5300首를 合해서 그 規模의 크기는 以前의 各種 醫書에 比할바 아니다. 그 書中 七竅病에 目病이 首로써 眼病 眼病因時에 生食五辛, 熱餐麵食, 房室無節, 夜讀細書, 久處烟火, 泣目過多等 喪明의 本으로 生覺하고 注意豫防 또한 治療, 內服과 外用藥方 81首가 수록되어 있다. 한예를 들면 “神曲丸, 主明目 百歲可讀任書” 後에 磁朱丸이라 稱한다. 또 頭暈, 耳鳴, 心悸, 失眠 等 症을 心腎不交者로 인식하여 그 治療에 응용하고, 猪, 牛, 羊, 兔等 眼病 外治法으로 發展하여 眼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③ 唐代 王壽의 《外臺秘要》 全書 40卷, 1104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中 1 ~ 20卷은 內科病을 記述하고 21 ~ 22卷은 五官病을 23 ~ 24卷은 驚癇, 瘰癧, 癰疽을 25 ~ 27卷은 二陰病을 28 ~ 30卷은 中惡, 金瘡, 惡疾, 大風等을 31 ~ 32卷은 丸散, 33 ~ 34卷은 婦人病, 35 ~ 36卷은 小兒病, 37 ~ 38卷은 乳石, 39卷은 明堂灸法, 40卷은 蟲獸傷과 畜疾이 記述되고 每門의 記述은 先論後方으로 秩序가 井然하다.

醫論部分은 《巢氏病源》을 爲主로 하고 醫方部分은 《千金方》에서 많이 뽑아서 기재되고 晋唐時에 散失된 方書의 基本內容을 알 수 있게 史料의 保存의 價値도 있다 하겠다.

短見은 王氏가 專門醫師가 아니어서 臨床經驗이 매우 적어 獨創的인 意見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 書中 眼疾一卷中에는 印度의 <天竺經>의 理論을 中心으로 眼의 六神의 主를 身의 四大要素인 地水火風의 所成된 眼의 解剖生理方面에 응용되어 즉 “認爲眼乃經膜裏水, 外膜百睛重數 有三, 黑睛水膜止有一重, 不可經觸 ; 眼之黑白分明, 眼管無滯, 外託三光, 內因神識, 故有所見” 또한 綠翳, 青盲도 “皆從內管, 眼孔不通所致” 라는 見解에 이르고 또 腦流青盲眼 (相當于白內障)을 언급함에 있어 “宜用金篦決, 一針之後割若者開雲而見白曰” 로써 金針으로 內障을 고치는 最早의 記載로서 그 重要性이 인정된다.

④ 《龍樹眼論》白居易<sup>8)</sup>詩에 ‘案上謾鋪龍樹論 盒中空捻決明丸’은 本書를 가르켜서 한말으로써 龍樹는 印度의 僧侶이므로 印度 醫學의 轉入이 적지 않아 隋志에 龍樹 菩薩藥方等 十餘種이 記載되고 있다 當時 印度의 眼科가 比較的 앞서 있었기 때문에 中國에 들어와서도 다소 重視을 받아, 中國의 眼科 發展에 影響을 미쳤다. 이 時期에 婦幼. 耳. 口. 齒. 目等의 分科 著述이 이미 相當히 普遍化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其他 眼科으로써는 唐代에 安置假眼

北宋李昉等이 編輯한 《太平御覽》에 “唐崔假失一目, 以珠代之”라고 記載되어 있고 또 北宋錢儼《吳越備史》“唐立武法, 以擊球賜 木睛以代之”原書 注還設, 木睛 “置目中無所碍, 視之如真睛”라는 근거로 말미암아 世界上 最初의 裝置假眼이라 하겠다.

3) 五官科의 設立

太醫署로 醫療 保健과 醫學 教育에 종사는 일로써 太醫令은 法을 管掌하고 承이 2명 있었으며 거기에 醫師, 針師, 按摩師, 呪禁師가 있고 博士를 두어 《脉訣》 《本草》 《明堂》 《素問》等 書를 가르치고 耳目口齒가 4年 동안 修業期間을 두었다. 眼科도 五官科의 하나로 成長하여 신속한 發展에 기여되고 전문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 眼科 基礎 理論의 發展

(1) 生理方面

《外台秘要》 “黑白分明, 肝管無滯, 外托三光, 內因神識, 故有所見” 로써 眼은 事物을 보는데 必要로 하는 3個의 條件이 있다는 見解로 다시 설명하면

- ① 眼의 組織이 正常的이면 病이 없다.
  - ② 빛에 照明 한다는 사실 (外托三光)
  - ③ 大腦意識이 正常 發顯 (內因神識)
- 現代의 眼科 生理의 見解와도 相似하다 하겠다.
- (2) 病因 病機 方面 周烏籠
- ① 《千金要方》 19因學說 卽 生食五辛, 接熱飲

食, 熱飧麵食, 飲酒不已, 房室無節, 極目遠視, 數看日月, 夜視星火, 夜讀細書, 月下看書, 抄寫多年, 雕鏤細書, 搏奔不休, 久處烟火霜, 迎風追善, 日夜不息等

② 《外台秘要》中 “日沒後讀書, 雪山巨睛視日, 極目 瞻視山川草本”等 21因으로 內經의 六淫因病爲主에서 臟腑 病機 辨證으로 進行되어갈 結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千金要方》中 眼病의 肝虛, 肝受, 風寒, 肝熱, 肝實熱, 膽虛寒, 膽受風邪, 腎陽虛, 腎陰虛, 膀胱 腎冷, 脾熱等 多種의 病機와 五輪學說의 出現後 先天 (胎患), 外傷 (瞳刺) 등이 結合하여 七情이 眼病이 되는데로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5) 臨床 診斷 方面의 發展

(1) 《諸病源候論》中

① 胸臉病: 睢目候, 目封塞候, 針眼候, 目風腫候, 目風赤候, 目數十年赤候, 眼赤候, 目蜡候, 目胎赤候, 緣目生瘡候

② 白睛病: 目赤痛候, 目飛血候, 目澀候, 目肥候, 日月夫翳候, 日月夫翳覆瞳子候, 目息肉淫膚候, 目珠管候

③ 黑睛病: 眼障翳候, 目抱瘡候, 溫病督功眼候, 熱病毒功眼候, 時氣毒功眼候, 目眇候, 目內有丁候, 目暈候,

④ 泪窠病: 目眇朦候, 目膿漏候, 目泪出不止候, 目風泪出候

⑤ 晶珠病: 目青盲有翳候

⑥ 瞳神病: 目青盲候, 目黑候, 目盲候, 省目候, 目茫茫候,

⑦ 眼帶病: 目視一物爲兩候, 目偏視候

⑧ 其他病: 目不能遠視候, 目暗不明候, 目珠子脫出候

⑨ 全身病性 眼症: 面癱, 癩瘤, 麻風, 虛勞 (見虛勞候, 虛勞目暗, 虛勞骨蒸候, 產後目眩候, 目眩候)

(2) 《千金要方》中

① 目赤類: 目赤腫痛, 眼昏赤, 赤脈息肉, 面黃目赤, 赤痛, 外眦赤痛, 胎赤眼, 眼眦赤, 目赤而視物不清

② 目痛類: 瞳人痛, 目痛閉不開, 眼痛, 目眦痛如刺, 目痛如脫, 目卒疼痛, 目痛不明, 目痛, 目中風疼

8 백낙천(771 ~ 846): 당나라의 시인

痛, 大風目痛

③ 目爛類 : 泪出爛眦, 眦爛有翳, 眦爛赤, 風眼眦, 目爛赤, 明目

④ 目痒, 腫子痒, 風痒赤痛

⑤ 目泪類 : 高風眼泪, 風泪出, 要風泪出, 泣出目痒, 目痒泪出, 目不明泪出, 目痛泪出不止, 中風冷泪出, 白膚風泪下

⑥ 翳膜類 : 淫月夫白翳, 目中淫月夫, 白莫覆腫子, 目中白翳, 內眦赤痛生白月夫翳, 日生障翳, 浮翳, 熱翳, 凌睛, 毒病及目赤痛有翳, 熱病後生翳, 目翳覆腫睛, 風熱生翳赤白膜, 白膜侵睛, 目中息淫膚, 目黃生翳

⑦ 視昏 与盲類 : 復中息肉月夫, 目瞑, 目昏濁, 目茫茫昏, 視物冥冥, 青盲, 遠視不明, 省目, 眼暮無所見, 偏視不明, 眼漠漠間, 失明漠漠, 熱病後眼暗失明, 眼病不明

⑧ 視覺異常類 : 見兩物, 諸視生花, 目眩, 目失精彩, 目眩冒, 視如見星

⑨ 外傷類 : 目爲物傷触, 眯目不明, 砂石草木入目, 稻麵芒入目, 目中眯不出

⑩ 其他 : 日生球管, 目睛黃, 面目浮腫, 目瞶動, 目系急目上挿, 目澀暴突, 目青而嘔, 目眦傷白睛青, 目黃振寒, 目上反, 目卒腫

(3) 《外台秘要》中

① 三種內眼病(綠翳青盲女烏風, 腦流青盲黑盲)

② 六種外眼病(翳膚障, 熱虛風, 天行赤眼痛, 痛損眼, 翳障般痕)

6) 臨床 治療 方面的 發展

(1) 藥物治療

① 《千金翼方》卷1 中 明目藥 55種, 止泪藥 15種, 治赤痛藥 15種, 痛九竅藥 6種

② 《千金要方》中 90個 眼症處方中 內服藥 39個, 外用藥方 60個, 外用藥中 点眼藥方 46個, 其他 14個 處方은 洗眼, 漬目, 慰目, 熏目, 外塗, 按摩等 千金要方

에서는 外用藥 治療를 眼疾을 치료하는데 重視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外台秘要》中에는 治療方面에서는 範圍가 狹少하고 內服藥 爲主고 外用藥은 應用이 狹小하고 其卷 21中 150個의 處方이 있다.

(2) 針灸治療

① 《千金要方》 비교적 詳細하여 其書中 28種 目疾 針灸處方이 있고 또 卷 30中에 또 30種 處方

② 《甲乙經》中 眼科 針灸資料는 豊富하고

③ 《外台秘要》中 灸法을 重視했다.

(3) 眼科 手術의 발전

① 《千金要方》中 肉의 手術割除法

② 《外台秘要》 割後回復을 容易 重視하고 “金篦決” 治法

③ 《龍樹眼論》綜合割烙法으로 金拔內障, 手法等을 紹介를 比較的 詳細하게 記錄되어 있다.

4. 眼科學의 獨立 發展 時期

唐宋 時代의 政府와 社會가 文學을 崇尚하여 자유스럽게 思想的으로 새로운 見解를 創造하여 낼 수 있었고 특히 宋代 文化 現像으로 가장 特色 있는 것은 直觀的인 것, 象徴的인 것, 內面的인 것을 볼 수 있겠다. 그것은 극히 哲學的이고 倫理的인 義理의 學으로 發展하였고 또한 萬物의 理法을 料明하고자 하였고 天理及人性을 研究의 主眼點으로 하여 道學, 性理學, 理學이라 하여 始發 되었고, 中 當時의 社會現實狀況의 基礎위에서 客觀的인 世界의 矛盾性을 認識하고, 八軌를 導入하여, 宇宙의 起源이 理와 氣의 相互關係에 있다는 것에 到達하여 無極이 宇宙의 根源이며, 太極이 動하여, 陽이 生하며, 動極則靜하여 陰이 생기며, 靜極하면 復動하여 兩儀 卽, 陰陽이 생기며 陰陽의 本은 太極이고, 太極의 本은 無極인 것이다.

陽變陰合하면, 五行인 金木水火土가 생기고, 二氣가 交感하면 化生萬物한다 하였다. 最高의 理想은 仁義中正이고 修養의 方法은 靜과 思가 있으며 靜은 無慾할 수 있고 思는 通微할 수 있으며 通微는 점차 無思에 달하게 되는데 無思가 비로소 誠에 合하고 誠에 合한것일 바로 聖人이라는 生覺도 哲學에 接木되어 나타나지게 되었고 火藥, 指南針, 印刷術의 發明으로 文化의 普及 發展 및 創造가 容易하도록 하였다.

醫學 教育도 “太醫局九科 學生額 300人 大方脈 120人, 風科 80人, 小方脈 20人, 眼科 20人 瘡腫兼折瘍 20人, 產科 10人, 口齒兼咽喉科로 設定하고 眼科 또한 獨立하여 成生과 시켜 重視했다.

1) 眼科 有關된 醫學著述

(1) 《太平聖惠方》은 太平興國 七年 (982年)에 編撰하기 始作하여 淳化 三年 (992年)에 完成된 著로 主要 責任者는 陳昭遇와 王懷隱으로 모두 1670門이며 16,834首의 方制를 收錄한 綜合 醫書로 第 1 ~ 2卷은 總論部分으로 診法及 處方用藥 등의 論述 第 3 ~ 7卷은 虛實風冷熱 등의 論證의 綱領으로 五臟六腑의 病과 治方을 論하였고 第 8 ~ 18卷은 傷寒時氣熱病 및 그 治方을 論하였고 第 19 ~ 31卷은 風病과 老病을 論하였고 第 32 ~ 37卷은 眼口齒咽喉耳鼻等 第 38 ~ 39卷은 服石과 解毒이고 第 50 ~ 59卷은 頭面胸腹及 脚氣 霍亂 消渴 水病 黃疸 淋痢等 雜病 第 60 ~ 68卷은 痔癰皮膚瘰癧損傷等 外科病이고 第 69 ~ 81卷은 婦人病이고 第 82 ~ 93卷은 小兒病이고 第 94 ~ 98卷은 神仙丹藥食治補益等이고 第 99 ~ 100卷은 明堂針灸로 되어있고, 論病部分은 《雜經》《傷寒論》《千金方》 등의 文을 引用 하였으나 새로운 見解는 比較的 적다. 그 書中 眼科方面으로는 內障을 手術하는 方法이 詳細히 記錄되어 手術前의 主義事項, 患者의 姿勢, 手術方法에서 手術後의 處理等에 이르기까지 모두 具體的으로 描寫 하고 있고 當時 時代相 迷信, 道教의 影響으로 煉丹服石成風, 丹石毒功等이 새로 倍加되고 있다.

(2) 北宋 時代 朝廷에서 編한 《聖濟總錄》은 性質은 《太平聖惠方》과 같고 단지 그 規模가 훨씬 커 모두 200卷으로 되어 있고 近 2萬 首의 處方을 收錄하였다.

眼部分은 卷 101 ~ 124에서 面體眼耳鼻口病 7門으로 《太平聖惠方》을 基礎로 內容은 補充하고 眼科 理論과 方制는 750餘首로 多用大方하며 藥味는 比較적 번잡하고, 眼科 手術, 了鉤割針鑷과 外治中에 多種慰法과 洛法等 그 內容이 豊富하여 創造의인 측면에서 큰 影響은 없지만 當時의 醫學情況을 反映한 面이나 文獻을 保存한 面에서는 그래도 相當한 意義가 있는 冊이다.

(3) 新藥의 日增

《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 政和六方 (1116年) 徽宗이 曹孝忠에 命해 刊校된 宋以前 本草學을 집대성한 藥 1740 餘種中 眼科 用藥이 180餘種으로 龍腦香 珊瑚等 外來 藥物로 眼科 藥用 食物이 大대적으로 擴充되었다.

(4) 《秘傳眼科 龍木論》 眼科 專門書로 全書 10卷인데 卷 1 ~ 6에는 眼科 72證方論이고 每症 六論아래에 “審的歌”가 附着되어 있고 卷 7에는 諸家 秘要 各方이고 卷 8에는 針灸經, 卷 9 ~ 10에는 諸方 辨證 藥性인데 書中 主要 內容은 內障, 外障 分類 72 種類의 病因과 眼病의 證治 症狀 治療 아울러 앞에서 소개된 鉤割 洗, 手術方法과 五輪學說等 後世 醫家에 影響을 주었으며 10卷 以後에 《葆光道人眼科 龍目集》의 “眼科 70問”의 問答 形式으로 主要 部分을 서술하고 八廓의 언급도 重要하다 하겠다.

(5) 孫思邈의 作이라고 傳하는 《銀海精微》는 그 이름이 托했다는 說도 있지만 眼科의 名著로 五輪, 八廓學說과 眼科 辨證 基礎知識을 列舉해 80餘種의 病因 證治로 說明했고 其前의 內治, 外治, 用藥을 더욱 詳細하게 했다.

2) 其他 眼科 成就是 眼鏡의 發明及 使用

南宋 趙希鵠/ 宋以前의 古文物著 《洞天清錄》中 “ai dai<sup>9)</sup>, 老人 不辨 細書, 以比掩目則明”라고 하고 明代 《文房器具箋》中 “大如錢 色如雲母”. 또한 張自列의 《正字通》에 設 “ai dai, 眼鏡也”眼鏡의 쓰임에 宋代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

\* 獨立發展 時期 (宋 ~ 元)

1) 生理 解剖 方面

以前の 眼科 生理, 病理, 理論에 突出的으로 整體觀念의 五輪, 八廓學說의 發展을 들 수 있겠다.

① 《太平聖惠方》 卷 32中 內經에 입각해 五輪을 配伍해서 예컨데, “五論應干五臟, 隨氣之主也, 肝者, 在臟爲肝, 其色青, 其味酸, 屬東方 甲乙木也, 壬于春, 肝氣痛干目, 左目屬乙 爲陰, 肝生風, 眼有風輪也, 惟有其名, 形狀, 難曉, 女水輪相輔也. 心者, 在臟爲心, 其色赤, 其味苦, 屬南方丙丁火也, 壬干夏, 心生血, 眼有血輪也, 血輪與肉輪相連, 赤黑色是也, 此輪忌針. 脾者, 在臟爲脾, 其色黃, 其味甘, 屬中央戊己土也, 壬于四系十八日, 脾生肉, 眼有肉輪也. 肉輪在外, 郁郁黃白色, 今俗爲白睛也. 肺者, 在臟爲肺, 其色白, 其味辛, 屬西方庚辛金也, 壬于秋. 肺生氣, 眼有氣輪也, 氣輪在肉輪之下, 隱而不見也,

9 안경의 古字

腎者，在臟爲腎，其色黑，其味咸，屬北方壬癸水也，壬于冬，眼有水輪也，水輪在四輪之內，爲四輪之母，能射光明，能視萬物，今呼爲瞳人也。

② 《宣明論方》女《三因方》中에도 五輪이 登在되어 있지만 具體의 內容은 없다.

③ 《儒門事親》中 惟有五輪，但簡略不完如整云：“夫目之五輪，乃五臟六腑之精華，宗脉之所聚，其氣輪屬肺金，肉輪屬脾土，青脉屬心火，黑水神光屬腎水，兼屬肝木，此世俗皆知之矣”

④ 《世醫得效方》唯一한 整理로 눈길을 끌고 있다. 白屬肺，氣之精氣輪，黑屬肝，筋之精風輪，上下臉屬脾胃，肉之精水輪. 後에 《銀海精微》는 이 說을 宋으로 삼았고 이 五輪學說은 後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또한 八廓에 對하여서도 《世醫得效方》에서 天廓傳導肺大腸 (位于白睛), 地廓水脾胃 (位于胞臉), 火廓抱陽心命門 (位于內眦), 水廓關泉小陽 (位于小眦白睛), 產廓清淨膽 (寄于睛仁), 澤廓津液膀胱 (寄于河臉)

⑤ 《銀海精微》中 八廓은 上其述과 相同하나 八卦正名(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으로 하여 금 每廓을 八象, 八卦, 八廓等 三種으로 名했다.

2) 病因 病機 方面

① 《太平聖惠方》中 《千金要方》의 19因 學說을 基礎로 原來 5因, 又増方 10因, 成爲 24因 學說. 또한 22條門의 肝臟 虛實熱이 眼의 病機에 이르고 15條門은 膽과 脾, 腎, 胃, 肺等이 目病이 되는 病機로써 認認되며

② 火熱派의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中 “目昧 不明, 目赤腫痛, 翳膜眦瘍皆爲熱也, 及目瞑, 俗爲之眼黑, 亦爲熱也, 然平白目無所見者, 熱氣郁之甚也” “仲景言傷寒病熱極 則 不識人, 乃目盲也, 正理曰由熱甚拂郁干目而致之然也”

③ 政下派의 張從正 《儒門事親》中 “目不因火 則 不病, 何以言之? 氣輪變赤, 火乘肺也; 肉輪赤腫, 火乘脾也; 黑水神光析翳, 火乘肝與腎也; 赤脈貫目, 火自甚也, 能治火者, 一句可了”

④ 脾胃派의 李杲《蘭室秘藏》中 “夫五臟 六腑之 精氣皆稟受于脾, 上貫于目, 脾者 諸陰之首也, 目者血脉之宗也, 故脾虛則 五臟之精氣 皆失所可, 不能歸陰于目矣 .... 凡醫者不理 脾胃及

養血安神, 治標不治本, 是不明 正理也” 以上 四家 論點은 비록 같지는 않지만 辨證論治의 原則에 充實했다.

3) 臨床 診斷 方面 發展

① 《太平聖惠方》 中丹石毒攻眼, 眼臉垂腫, 陞睛. 小兒眼省目, 小兒眼青盲, 小兒緣目生瘡, 小兒疳眼, 小兒眼赤痛

② 《聖濟總錄》中 肝虛眼, 目臉垂緩, 將變內障, 眼目眇朦, 目暈等

③ 《銀海精微》中 《龍本聰論》에 60種, 《太平聖惠方》에 6種, 《脾胃論》 《諸病原候論》等을 참고 하고 새로이 15種을 倍加하여 81種이 되었다.

“胞腫如挑, 眇泪淨明, 蠅翅黑花, 眇泪粘膿, 熱極 眇睛, 痛極憎寒, 痛而體熱, 臉停淤血, 赤而不痛, 右赤傳左, 左赤傳右, 視物不眞, 室女逆經, 血室澀痛, 白睛赤黃等

3) 臨床 治療 方面의 發展

①《太平聖惠方》中 按兵方劑 500多首  
② 《聖濟總錄》中 700多首, 또 《針灸門》中 眼科應用 針灸治療 穴位, 主治, 功能, 針灸方法, 禁忌等 詳細한 資料로 穴位 130個, 其中 經絡 分類로 22穴이 되고 手太陰, 手陽明, 手少陰, 手太陽, 手少陽, 足少陽, 足太陽等 7個經脉으로 分布되고 其外 100多穴이 述되어 있다. 宋元時代에는 前代에 비해 眼科 針灸 資料는 적지 않게 서술되어 있다.

총체적으로 宋元代時期는 眼科 基礎 理論이 새로이 加味되고, 藥物, 方劑도 豊富해지고 前代에 비해 手術, 外治, 針灸等 技術이 倍加되고 獨立의 인 臨床 專科로서 發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 金元時代

大元帝國은 蒙古 遊牧民族에 의해 設立된 國으로 各自 生活風俗을 달리하여서 社會構造를 달리한 多種多樣의 民族이 各各 地域別 社會를 形成하고 있어 文化的으로 融合되는 일이 없었고 그 자체의 特性을 保有하게 되었다. 醫學에서도 基本理論 自體에는 顯著한 發展이 없었지만 運氣理論研究에 對하여 상당한 發展의 새로운 試圖가 있어 醫學流派의 出現은 그러한 趨勢를 잘 反映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理論探求는 臨床으로부터 出發하여 疾病發生과 變化의 規律을 追求하였는데 특히 病機와 聯關된 病理學說 方面에 重點을 두었고 그 方法은 個人的 觀察과 經驗에 根據해서 研究했으므로 學問 受容過程에서 主觀化할 수 밖에 없는 素地가 많아 醫學流派의 出現에 原因이 됐다.

그리하여 그 重要한 人物은 所謂 '金元四大家'인 데 劉完素, 李杲, 張從政, 朱雲亨等 四人이다.

또 眼科 方面에서는 元末 眼科 醫師 倪維德 역시 큰 成就를 얻고 後代 醫家들의 崇을 받고 있다.

### 1. 劉河間의 火熱爲病學說로써 眼科 方面 <素問玄機原病式> 中

① 目昏赤翳膜皆屬于熱, 治宜降心火, 滋腎水 用藥偏重寒涼

② “玄府<sup>10)</sup>者, 無物不有” 若眼部 玄府閉塞則 不可引起眼病, 玄府閉塞 又多由熱氣弗盍所致, 故宜治火以通玄府

### 2. 張子和의 主化之說을 繼承發展한 眼科方面 <儒門事親> 中

① 目不因火則 不病, 能治火者, 一句可了, 治以祛邪爲主, 善用攻下法

② 血之于目, 太過則壅塞而發病, 不及則 目耗竭而失明, 故當治其太過本及, 以血養目

3. 李東垣의 內傷學說로써 脾胃, 益完氣를 重視하여 眼科方面에서도 <蘭室秘藏> 中 “脾虛臟腑精氣 不能 上貫于目則目不明”

4. 朱丹溪는 相火易動則相火妄動則精泄하여 陽有餘, 陰不足이 疾病의 根本이 되고 陰虛火動則 滋陰降火之法으로 治療한다는 說로써 <丹溪心法> 中 “眼病所因, 不過虛實二者而已, 虛者眼目昏花, 腎經眞水之微也, 實者眼目腫痛, 肝經風熱之甚也”

### 5. 倪維德

字는 仲賢이고, 吳縣人이고 元大德 7年 (1303年) 出하여 明洪武 十年 (1377) 卒한 사람으로 “祖父以顯 維德 幼嗜學 易乃業醫 內經爲宗 ..... 不得不然 故其 處方不執一設 常患 眼科 雜出方論 無全書 著 原機啓微이라고 하였다. 이 冊은 모두 二卷인데 上卷은 淫熱反和之病, 風熱不制之病, 七情五賊

勞役飢飽之病等과 같은 疾病의 源을 論했고 下卷은 方劑之宜 및 逆從反正之義를 論했으며, 아울러 各部方을 應用하였다. 뒤에 있는 附錄 一卷은 雜論으로, 40餘方인데 論目爲血脈之宗, 內障 外障論, 眼病 分表시 治療微睫亦爛論等이다. <原機啓微> 는 明代의 薛立齊가 일찍이 注釋했으며, 後世에 多大한 影響을 끼친 眼科의 全書이다. 薛立齊의 評價는 “眼目一課, 世無全書, 預每病焉, 嘗讀南齊龍樹王所著龍本論, 篇章簡略, 其義未備, 曩預承乏留都, 獲敕山老人, 原機啓微 其詞古, 其論確, 刀圭之玄, 方劑之神, 抱爛之精, 條分縷析, 氣運該通, 可謂見道分明, 得內經之旨, 預壽之 一日三復, 不得去手라고 하였다.

### (2) 明代

明은 唐이후 中國의 自治國인 統一時代로, 그 國勢 强盛함이 宋代와 比較 될 수 없을 程度로 肥大하였으나 거의 通治 期間中 內政方法에서는 異狀할 程度로 腐敗와 暗黑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明初부터 잘못된 基礎에서 出發했으나 그래서 그런지 太祖는 程朱學을 극히 尊重하였으므로, 上流社會에 朱熹學이 크게 流行하였다. 그 設은 理氣二元論으로 精神과 物質은 相互依存의인 것이라는 것인데 後에 1472 ~ 1528年 間의 王守仁은 사람은 단지 '良知'를 잘 發揚시켜 實行해 가면 된다는 主張 등 2개 學說이 當時及 後代의 思想界에 크게 影響을 미쳤으므로, 醫學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그 예로 孫一奎는 朱熹의 “理不在氣先 氣亦不在理後”와 若無氣, 則理亦無樹搭處의 理論을 醫學方面으로 發展 시킨 것이다.

明代 醫學은 前代의 理論을 臨床을 通하여 綜合折衷하여, 점차 다른 名派가 統一되어 하나의 比較的 系統的이고 完備된 理論體系를 이루고 잘 結付시켜 具體的으로 臨床에 應用하는 것이었는데 그 過程은 複雜하고 매우 劇烈한 爭論과 鬭爭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尊經衛道の 復古主義 思想으로 '儒醫'라고 自處하며 “理必內徑, 法必仲景, 藥必本經” 이라고까지 하여 그 누구도 그 冊을 批評할 수도 없는 風潮에서 醫家들은 自己主張을 펴면서도 그 根據를 經典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溫補派와 補陰派間의 論爭, 命門과 相火에 關한 爭論, 三론에 關한 爭論等이 學問의 發展과 綜合 및 體系化에 모두

10 毛孔

대단한 促進을 한 것은 事實이었다.

臨床醫學方面에서는 問診과 舌診이 重視되고 傳染病의 認識과 治療, 豫防等의 發展은 溫病學說의 發展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기 때문이었고 明代의 名醫는 東南에 많았으므로 “醫莫盛於吳中”이라는 말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太醫院 13科 曰大方派, 曰小方派, 曰婦人, 曰瘡瘍, 曰針灸, 曰眼, 曰齒, 曰接骨, 曰傷寒, 曰咽喉, 曰金鐵, 曰按摩, 曰祝由等中 眼科도 하나의 成科과 되어 發展하는 醫學의 하나가 되었다.

#### \* 主要著作 下述

1) 《證治準繩》王肯堂 公元 1602年 輯成된 臨床書로 8卷 모두 13門, 卽, 諸傷, 寒熱, 嘔逆, 諸血, 諸痛, 痿痺, 諸風, 神志, 雜門大小腸, 七竅等으로 나누어져 있고, 類方八卷이 덧붙여져 있다.

其中 “七竅門”內 眼科 專篇에 眼 正面 方向으로 八方을 配位하는 等과 眼의 一部 生理와 神鬲, 神光, 眞氣, 眞血, 眞精의 設과 肉眼으로 能히 볼 수 있는 臨床을 觀察하여 描述된 癡脂翳<sup>11)</sup>, 物損眞睛等 眼科 臨床에 一助했다.

2) 《審視謠函》은 明代의 著名한 眼科 專門書이다. 이 책은 또한 《眼科大全》 《傅氏眼科審視謠函》이라고도 稱하는데 傅仁宇가 編選할 것이다. 傅仁宇는 字자 允科이고 安徽休寧 (一說에는 南京人) 人으로 生卒年은 未詳이다. 世醫之家出身으로 30餘年을 行醫하였으며 眼科에 能하였다. 그는 前人들의 眼科와 有關한 論述을 收集하고 本人의 眼科 臨床 經驗과 結合하여 編成되었는바, 原稿가 完成된 後에 南京의 太醫院에서 任職하고 있는 아들 傅國棟 (字는 維藩)과 사위 張文凱補充하고 編校하여 崇禎十七年 (1644年)에 刊行되었다. 모두 六卷으로 卷의 첫머리에서는 五輪八廓, 五運六氣 및 前賢醫案 23列를 記述 하였고 卷 1은 總論으로 五輪八廓 所屬論, 目爲至寶論, 鉤割針熨宜戒慎論, 內外二障論 등을 包含하였고, 卷 2는 病因病機로써 주로 《原機啓微》에서 收錄한 것이고 卷 3 ~ 6는 주로 《證治準繩》을 根據 하여 108種의 眼科 病證을 記述하였는데 19類로 나누어 論述하였다. 책에서는 300餘首의 六劑와 用藥宜忌를

記載하였고, 金針拔障術과 鉤割, 針灸, 點, 洗, 敷, 等の 眼病外治法을 分述하였으며 針法, 術前洗眼, 手術方法과 手術後의 看護에 대하여 紹介하였고 小兒目病과 眼科針灸에 대하여도 言及하였다. 또한 多種의 眼科 手術器具 및 眼科 針灸要穴을 그림으로 說明하기도 하였다. 本書는 內容이 豊富하여 眼科 歷史上 價値있는 全門書이다.

3) 《本草綱目》李時珍의 著述로 모두 52卷으로 되어있는데, 第 1 ~ 2卷은 序列로 七方十劑<sup>12)13)</sup>, 氣味, 陰陽, 昇降, 浮沈, 臟腑, 標本用藥式 및 相須, 相使, 相異, 相惡, 相反諸藥, 用藥禁忌, 諸家用藥, 凡例 등을 包括하여 叢論의 性格을 띠고 있다. 第 3 ~ 4卷은 百病主治藥으로, 各科一百餘種 疾病의 常用 藥物을 列舉하여 臨床醫들의 選擇에 매우 便利하게 하였다.

第 5 ~ 52卷은 各論으로 水, 火, 土, 鈔, 草, 穀, 菜, 果, 木, 器服, 蟲, 鱗, 介, 禽獸 및 人의 次例로 16部 60類로 모두 1892種의 藥物을 실고 있다. 그中 眼科藥은 400 多種으로 每藥物의 性味, 形態採集, 炮制, 主治, 方劑, 配伍等 細細히 記載되어 實用에 意義가 크다.

4) 朱橚의 《普濟方》 千26卷은 《四庫提要》에 168卷으로 되어 있으며, “凡, 1960論 2175類 778法 61739方 239圖 菜 繁富 編次詳悉, 自古經方, 無更該備於是者”라 했다. 文獻資料를 保有하여 研究家에 參考가 되는 外에는 그다지 實用的인 價値는 크지 않다.

“眼目門” 十六卷에는 收方 2300 多首 과 集病名 300 餘種으로 類十種의 眼科書籍과 資料로 集成하였고 40餘種의 眼病症狀名을 두고 있다.

5) 明朝中葉 徐春南의 《古今醫統大全》로써 其書中 眼科部分列 72症으로 證과 方이 있으며 《原機啓微》 十八篇 原文이 記載되어 있다.

6) 薛己 字는 新南; 號는 立齋, 吳縣人이다. 御醫及 太醫院使를 歷任했다. 父의 字는 良武인데 역시 醫理에 精通하여 疾病을 치료할 때 반드시 五行의 生克에 根本했고, 按方施治하지 않았다. 新甫도 아버지의 學問을 이어 醫通해서 처음에는 堂醫로서나 後에 內科醫로 有名했다. 그의 著述中

11 흑정(각막)에 누런색을 띠는 예가 생기고 점차 패이면서 그 위에 고름이 덮히는 병증

12 七方 : 大方, 小方, 緩方, 急方, 寄方, 偶方, 複方

13 十劑 : 宣, 通, 補, 泄, 輕, 重, 滑, 澀, 燥, 濕

하나인 《薛氏醫案》 또한 《原機啓微》을 받아들여 其後 附錄에 各家 學說, 前賢醫案. 또한 十齊로 分類한 39個 處方과 小兒 眼病中 25個의 處方等 有較的 參考할 價値가 있다 하겠다.

7) 李延의 《醫學入門》은 內集 九卷과 外集 十卷으로 構成되어 있고 針灸는 宗案難하고, 診脉은 宗叔하고 本草는 《醫經小學》 및 《醫方捷經釋藥集韻》을 基本 했고 溫暑는 《劉河間原病式》

이고 傷寒은 陶氏六書고 內傷은 東垣과 名家總法이고 女科는 《婦人良方》 幼科는 宗揚土 이고 痘證은 《醫學正傳》으로 爲要했고 外科는 《外科樞要》했다. 《醫學入門》中 眼科 方面의 李氏 主張은 眼病의 表裏區分으로 認爲 風中腦戶, 濕漬頭上, 久處 涸火, 腫刺外傷之類 屬外因, 致病在毒, 傷目之標 : 五辛灸縛, 房室勞役, 暴怒 暴驚, 夜書細字之類 屬內因, 致病在裏, 傷目之本으로 나타내었고 또한 五輪設中 肉論을 細分해서 上胞는 脾, 下瞼은 胃로 區分했고 八廓의 臟腑 配伍도 眼의 位直로 새로운 調整해 注目を 끌었다.

8) 楊繼洲의 著書로 《針灸大成》 이 時期에는 哀惜하게도 比較的 훌륭한 針灸書가 적어 本書가 三百年 동안 내려오면서 唯一한 書籍이 되었다.

其書中 耳目門에 記載된 眼病 21種, 針灸用穴 80餘個 있고 其他 篇章에도 眼疾의 針灸治療 記載가 적지 않게 있어 穴位의 主治功能이 詳細해서 眼科의 針灸 治療 方面에 系統的인 資料가 되었다.

9) 明末, 龔信 《古今醫鑿》, 龔廷賢의 《壽世保元》 趙獻可의 《醫貫》, 張介賓 《景岳全書》等 眼科 專篇에는 共히 整體辨證에 特點을 두었지 五輪, 八廓 學說은 採用하지 않았다.

### (3) 清代

清朝는 吳民族이 세운 王朝이지만 漢民族의 文化와 融合하고자 企圖하였기에 自然, 儒學을 尊敬하였다. 이때는 經學을 研究하는데 있어 空理空談을 排斥하고 證據에 의해서만 論理를 세운다는 實證的인 研究態度를 取하여, 經史의 考證, 訓古에 重點을 두었으므로 撲學이라 부르며 實事求是 理念으로 清代의 醫學은 考證學과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어 俞嘉言 같은 이는 먼저 病을 議論한 後에 藥을 論하라는 主張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의 醫生들이 다만 處方의 講求에만 급급하고 病人의

觀察과 疾病의 分析을 疏忽하는 것에 反하는 것으로 당시의 ‘實事求是’ ‘無徵不信’의 精神과 一致된다. 또한 溫病學의 發展, 流派間의 論爭 (① 經方과 時方 ② 情理에 관한 논쟁 ③ ‘六經’의 解釋에 對한 論爭 ④ 外科 方面 理論 論爭) 이런 爭論은 大部分 臨床 醫學과 連繫되어 漢醫學의 辨證論治의 原則確立에 直接, 間接으로 커다란 作用을 하였다. 또한 清代는 王清任에 이르러 解剖學의 始作을 보게 되었고 種痘 接種의 發明과 普及이 成立되는 등 醫學의 一代革新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 \* 眼科에 有關된 醫書

#### 1) 張璐 《張氏醫通》

字는 路王이고 號는 石頑 이고 吳江 長洲人이다.

明末에 混亂을 당하자 洞庭山中에 隱居하면서 10餘年 동안 著述에 沒頭하였다.

卷16으로 前 12卷은 中風부터 嬰兒門까지 모두 16門이다. 그의 證類의 차례는 《證治準繩》처럼 每病마다 먼저 《內經》 및 《金匱》의 論述을 列舉하고, 다음으로 諸家의 設을 引用하고, 最後에 治驗例를 덧붙였다.

前賢諸家의 主張을 단지 折衷 綜合한것 뿐이며, 새로운 創見은 매우 적다. 其書中 “七竅門”에는 眼病의 歷代 醫學 文獻을 引用하고 作者의 臨床 實習을 綜合하였으며 편집이 比較的 精米하다. 眼部 辨證은 約 160種이고 43種이다.

2) 康熙應正間 (1711 ~ 1725년)에 陳夢雷, 莊廷錫 등이 編성한 《醫部全錄》은 모두 520卷으로 書中 目門 十三卷에는 歷代 眼科 文獻을 輯擇하고 前에 醫論후에 方藥, 針灸, 導引, 議案等 內容이 豊富하여 參考할 價値가 자못 크다 하겠다.

#### 3) 《醫宗金鑑》 (1742年) 吳謙 등이 編選

本書는 淸의 政府 組織의 여러 方面의 人員이 編選한 大型 綜合性 醫籍이다. 全書는 90卷으로 그中 《眼科心法要訣》이 15卷 《正骨心法要旨》가 4卷이며 其書中 “眼科心法要訣” 兩卷은 文字가 簡明하여 쉽게 學問할 수 있게 했고 總論에 있어서 八廓의 五장配伍가 같지 않고 단지 命門, 包絡等 六附에 配屬하여 前代 各書에 같지 않고 首로는 眼科 診法이고 後에 眼病 內障 24症, 外障 48

症을 敍述하였고 補遺 10症 共計 82症으로 하고 記載된 方은 113方이며 七言歌訣로 正文을 아는데 盡力を 다했고 註釋을 附加하여 便論하기 좋게 했다.

4) 《銀海指南》 全書 四卷이며 卷 1, 2는 眼科의 五輪 八廓과 運氣學說과 眼病的 病因病機과 臟腑主病 및 全身兼症等이고 卷3은 內服藥 170餘首고 外用方 11首이고 卷 4는 驗案 170餘列으로 構成되어 있다 書中の 病因, 臟腑等의 眼部 病症의 方法은 歸納分析으로 明確하여 實用에서 治療方面의 소득이 크다 하겠다. 다만, 眼의 手術療法에는 贊成하지는 않았다.

5) 黃庭鏡著 《目經大成》 (1748년) 全書 3卷

卷 1는 眼部 解剖 生理 辨證 治療 及 일련은 雜論, 卷 2는 考症, 12類의 病因과 81症 및 似因非症 8條, 卷 3는 方 200多首와 《景岳全書》의 八陣 “曰補陣 補其虛, 曰和陣, 和其不和, 曰攻陣 攻其實, 曰散陣 散表陣, 曰寒陣, 爲清火, 曰熱陣 爲除寒, 曰固陣, 固其世, 曰因陣, 因其可因”을 응용하여 八陣 分類를 模倣했고 書는 突出的인 見解는 적지 않아서 그 예를 들면

① 五輪八廓學說의 發揮 ; 黃氏기出, 五輪中血論의 部位除兩除外, 包括內眦頭如珠之肉 水論包括金井 (瞳孔), 以及膏中狀如水晶棋子之 “珠”至于八廓, 黃氏從命名到眼部 配位均 立新說

② 繼承, 整理針撥述 ; 黃氏對針撥述 結出了審機, 點睛, 射復, 深驅, 擾海, 卷簾, 圓鏡, 完璧等 八法

③ 詳細記錄病歷 ; 黃氏 反對 巫醫及迷信, 強調在診病時要細心和耐心, 處理時要慎重又要大膽

④ 獨創病名多 ; 對很多病症名作了改動 “黃膜上沖” 爲 “黃液上沖” 而有此改得不太合理, 如 “春水揚波” “虛潭狂月” 之類已不具病名特征

“目科正宗”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6) 其他 眼科 書籍

程玠 《眼科應驗良方》 鄧苑 《一草亭目科全書》 馬化龍 《眼科單微》 王子固 《眼科百問》 譔人不詳 《專授眼科》 《眼科寄書》 等도 後世에 一定한 影響을 비쳤다.

7) 眼科의 切要

王錫鎰의 著述로 字는 文選이고 號는 亞拙山人이다.

이書는 1847년에 刊行되었는데 通俗의이고 實用的인 眼科書라 할 수 있다. 眼科가 모든 科의 우두머리라고 認識하였는데 왜냐하면 一身에서 重要な 것이 두눈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하여 數十年동안 行醫하면서 특히 眼科를 가장 깊이 體得하였다. 이책 序文에 이르기를 “此書是匯群書之精 ..... 溪必令閱者之若浩繁乎”라고 하였는데 簡便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歌賦의 形式으로 五十餘種의 眼病의 診斷方法을 論述하였고 아울러 能히 百餘種의 眼症을 治療할 수 있는 一百餘首의 方劑를 提示하였는데 劑型은 湯劑뿐만아니라 丸制, 散制, 膏制, 丹制 및 點眼藥等 이 보이며 醫者로 하여금 依支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患者도 症狀를 보고 方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책 중에서 眼病의 原因과 病變의 理致를 記述하지 않고 略하여 初學者는 그러한 줄만 알고 왜 그런줄은 알지 못하니 眞實로 有感스러운 일이다.

8) 眼科 六要

陣國篤이 1851년에 編纂한 것인데 이는 數千年 동안의 臨床에서 얻은 것이다. 陣國篤은 治病에는 求本이 貴하니 비록 眼病이 그 種類는 많으나 原因을 究明하면 風, 水, 血, 水虛, 火敗, 神勞, 六種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認識하였는데 그러므로 “若以病之所因而論則餘, 六要之說足以盡之”라고 하여 이것으로 書名을 지은 것이다. 其書는 二卷으로 上卷은 目赤, 目腫, 目痛, 目痒, 近視, 遠視, 倒睫, 迎風, 流目, 內障, 省目, 鹿眊等 四十種의 常見眼病과 病因, 症狀 및 그 治法을 論述하였다. 下卷은 內服諸藥 39方 點眼諸藥 5方 洗眼諸藥 3방을 羅列하였다. 早期治療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는데 “..... 凡省盲務宜早治. 若因循日久則, 變青盲者 有之變內障者 有之變黃風不治之症者 ..... 不可不慎也”라 하고 이책에 記錄되어 있는 眼科各症은 理致 方藥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論述이 明確하나데 실로 흔하게 볼 수 있는 專門書는 아니다.

9) 中西眼科 匯通

陣滋가 編撰한 것으로 1936년에 刊行되었는데 作者는 中西眼科匯通의 影響을 받아 眼科領域에 一次로 試驗하였다. 陣滋는 西醫解剖에 根據하여 眼科病을 眼瞼泪器, 結膜, 角膜, 虹膜, 晶體, 玻璃體, 網膜과 視神經, 眼壓, 眼位, 및 目力障礙, 外傷

性 眼病等 13가지로 分類하여 眼病 眼名을 거의 百個나 提示하였는데 每病에 모두 中西醫命稱과 症狀 및 治療方法이 있다. 中西匯通은 中醫眼科의 用藥을 充分히 肯定한 狀態에서 西醫眼科中 보텔 만한 것을 吸收하여 펴낸 것이다. 그 時代의 局限性으로 正確한 科學的 方法이 缺乏되었는데 中醫 西醫 眼科 病名 部分의 相互對照外에는 其他 方面에서 아직 成功을 얻지 못하였다. 책 끝에 붙여진 眼科 處方은 眼科 方制를 모은 大全이라고 할만한데, 中醫內服驗方 845個와 眼藥方 96個, 外用方 31個를 收錄하였는데 이는 歷代眼科 專門書中에 記錄된 方制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10) 眼科 菁華錄

浙江余姚의 康惟恂이 著作하여 1936년에 刊行되

었다. 康惟恂은 歷代 眼科醫籍이 博而不約하지 않고 略而 部詳한데에 有感이 있는데 책머리에 眼科의 生理, 病理, 診斷, 器具圖, 針穴圖等 眼科 基礎知識을 羅列하였다. 上卷은 外症, 外障, 目赤, 目痕, 妄見, 內障等 十七門을 羅列하여 眼科 各種 疾病의 原因, 症狀, 辨證과 方劑를 詳細히 論述하였고 下卷에서는 丸, 散, 膏, 丹等の 많은 種類의 劑型으로 된 驗方을 收集하여 記錄하였다. 이 책은 條理가 間斷 明瞭하고 論述이 明確하여 眼科를 처음 배우려는 者에게 매우 適合하다.

【考察】

이상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대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한다.

表 1. 歷代部分醫籍中 五論學說配臟配位概覽

五輪配屬書名	肉輪		血輪		氣輪		風輪		水輪	
	配位	臟	配位	臟	配位	臟	配位	臟	配位	臟
劉皓眼論準的歌	兩脣	脾	赤翳	心	白睛	肺	在內無形	肝	黑睛	腎
太平聖惠方	白睛	脾	赤黑色	心	白睛下	肺	無形無位	肝	瞳仁	腎
葆光道人眼科龍木集	白睛	脾	赤黑色	心	白睛下	肺	無形無位	肝	瞳仁	腎
世醫得效方	咆臉	脾	兩眦	心	白睛	肺	黑睛	肝	瞳神	腎
普濟方	白睛	脾	赤黑色	心	白睛下	肺	無形無位	肝	瞳仁	腎
銀海精微	上下咆臉	脾	兩眦	心	白睛	肺	黑睛	肝	瞳仁	腎
醫學入門	上咆	脾	內眦	心	白球	肺	烏球	肝	瞳神	腎
	下咆	胃	銳眦	心						
證治準繩	咆臉	脾	大眦	心	白睛	肺	烏睛	肝	瞳仁	腎
			小眦	心包						
審視瑤函	上咆	脾	大小眦	心	白珠	肺	黑珠	肝	瞳神	腎
	下咆	胃								
眼科入門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張氏醫痛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醫宗金鑒	上下咆	脾	內外眦	心	白睛	肺	黑睛	肝	瞳仁	腎
目經大成	咆臉	脾	兩眦	心	白睛	肺	黑睛	肝	瞳神	腎
銀海指南	上下咆臉	脾	大眦	心	白睛	肺	青睛	肝	瞳神	腎
			小眦	心包						
眼科纂要			大小眦	心	白珠	肺	黑珠	肝	瞳神	腎
疾學心吾	眼眶	脾	紅絲	心	白色	肺	黑色	肝	瞳人	腎
眼科捷徑	咆臉	脾	兩眦	心	白睛	肺	黑睛	肝	瞳神	腎
眼科百問	眼咆	脾	經絡	心	白珠	肺	烏睛	肝	瞳仁	腎

表 2. 八廓有名無位學說概覽

書名配位八廓	葆光道人眼科龍木集	張氏醫痛	類證治提	眼科百問
名稱	傳道廓	天, 傳道廓	天廓	傳導廓
臟腑	肺	大腸之府	大腸	肺, 大腸

表 2. 八廓有名無位學說概覽

書名配位八廓	葆光道人眼科龍木集	張氏醫痛	類證治提	眼科百問
名稱	會陰廓	水, 會陰廓	水廓	會陰廓
臟腑	腎	腎之府	腎	腎
名稱	青靜廓	山, 清淨廓	山廓	清淨廓
臟腑	肝	膽之府	膽	膽
名稱	關泉廓	雷, 關前廓	雷廓	關泉廓
臟腑	小腸	小腸之府	小腸	小腸
名稱	養化廓	風, 養化廓	風廓	養化廓
臟腑	三焦, 肝	肝之府	肝	三焦
名稱	抱陽廓	火, 抱陽廓	火廓	抱陽廓
臟腑	命門	命門之府	命門	心包, 命門
名稱	水谷廓	地, 水谷廓	地廓	水谷廓
臟腑	脾胃	脾胃之府	脾胃	脾胃
名稱	津液廓	澤, 津液廓	澤廓	津液廓
臟腑	膀胱	膀胱之府	膀胱	膀胱

表 3 八廓与五輪重迭配位法概覽

書名八廓配屬	世醫得效方	銀海精微	醫學入門	醫宗金鑒	眼科纂要	目經大成	眼科捷徑
廓名	天, 傳導	乾, 天, 傳送	乾, 天	乾, 天, 傳導	乾, 天, 傳送	乾, 行進	乾, 天, 傳導
臟腑	肺, 大腸	肺, 大腸	肺, 大腸	大腸	大腸	肺与大腸	肺, 大腸
配位	白睛	白睛	白睛中間	白睛	寄于白仁	白珠	白睛
廓名	水, 會陰	坎, 水, 會陰	坎, 水	坎, 水, 津液	坎, 水, 會陰	坎, 宣化	坎, 水, 會陰
臟腑	腎	腎	腎	膀胱	腎	腎与膀胱	腎
配位	瞳仁	瞳仁	瞳子	瞳仁	瞳仁	神膏	瞳仁
廓名	山, 清淨	艮, 山, 清淨	艮, 山	艮, 山, 會陰	艮, 山, 清淨	艮, 育德	艮, 山, 清淨
臟腑	眼膽	膽	膽	包絡	膽	脾与命門	膽
配位	寄于瞳仁	寄于瞳仁	神光	外眦	寄于白仁	上臉	外眦上方
廓名	雷, 關泉	震, 雷, 關泉	震, 雷	震, 雷, 關泉	震, 雷, 關元	震, 清, 鎮	震, 雷, 關泉
臟腑	小腸	心, 小腸	小腸	命門	小腸	肝与膽	心, 小腸
配位	小眦, 白睛	小眦眼臉	白睛上 趨向小眦	內眦	寄于上臉	清淨	內眦下
廓名	風, 養化	巽, 風, 養化	巽, 風	巽, 風, 養化	巽, 風, 養化	巽, 定光	巽, 風, 養化
臟腑	肝	肝	肝	膽	肝	肝腑与髓海	肝
配位	黑睛	烏睛	烏珠瞳仁外	黑睛	烏睛	金井	黑睛
廓名	火, 抱陽	離, 火, 抱陽	離, 火	離, 火, 抱陽	離, 火, 抱陽	虛靈	火, 抱陽
臟腑	心, 命門	心, 命門	心, 命門	小腸	心, 心包, 命門	心与小腸	命門, 心包絡
配位	大小眦	白睛小眦	大, 小眦	內眦	大, 小眦	內眦	內眦上
廓名	地, 水谷	坤, 地, 水谷	坤, 地	坤, 地, 水谷	坤, 地, 水谷	坤, 資生	坤, 地, 水谷
臟腑	脾, 胃	脾, 胃	脾, 胃	胃	脾, 胃	脾与胃	脾, 胃
配位	咆臉	咆臉	上下臉	咆臉	上下臉	下臉	咆臉
廓名	澤, 津液	兌, 澤, 津液	兌, 澤	兌, 澤, 清淨	兌, 澤, 津液	兌, 性能	兌, 澤, 津液
臟腑	膀胱	膀胱	膀胱	三焦	膀胱, 三焦	腎脂与膽中	膀胱
配位	寄于下臉	寄于下臉	白睛下 趨向大眦	外眦	寄于大小眦	銳眦	外眦下部

表 4 八廓之方配位法概覽

書名八廓配屬	症治準繩	審視瑤函	銀海脂南	眼科入門
廓名	乾, 傳導	乾, 天, 傳	乾, 傳導	乾, 天, 傳導
臟腑	肺, 大腸	肺, 大腸	肺, 大腸	肺, 大腸
配位	西北方	銳眦下	銳眦下	小眦上
廓名	坎, 津液	坎, 水, 津液	坎, 津液	坎, 水, 津液
臟腑	腎, 膀胱	腎, 膀胱	腎, 膀胱	腎, 膀胱
配位	正北方	正下方	正下方	正下方
廓名	艮, 會陰	艮, 山, 會陰	艮, 會陰	艮, 山, 會陰
臟腑	命門, 上焦	命門, 上焦	命門, 上焦	命門, 上焦
配位	東北方	內眦下	內眦下	內眦下
廓名	震, 清淨	震, 雷, 清淨	震, 清淨	震, 雷, 清淨
臟腑	肝, 膽	肝, 膽	肝, 膽	肝, 膽
配位	正東方	內眦部	內眦部	內眦部
廓名	巽, 養化	巽, 風, 養化	巽, 養化	巽, 風, 養化
臟腑	肝絡, 中焦	肝絡, 中焦	肝絡, 中焦	肝絡, 中焦
配位	東南方	內眦上	內眦上	內眦上
廓名	離, 咆陽	離, 火, 咆陽	離, 咆陽	離, 火, 咆陽
臟腑	心, 小腸	心, 小腸	心, 小腸	心, 小腸
配位	正南方	正上方	正上方	正上方
廓名	坤, 水谷	坤, 地, 水谷	坤, 水谷	坤, 地, 水谷
臟腑	脾, 胃	脾, 胃	脾, 胃	脾, 胃
配位	西南方	小眦上	小眦上	小眦上
廓名	兌, 關泉	兌, 澤, 關泉	兌, 關泉	兌, 關泉
臟腑	腎絡, 下焦	腎絡, 下焦	腎絡, 下焦	腎絡, 下焦
配位	正西方	小眦部	小眦部	小眦部

### III. 結 論

眼科에 대한 文獻을 고찰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眼科疾患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武丁時期(기원전 13~14세기경)에 이미 '喪明', '貞王弗疾目', '大目不喪明' 등의 文字로 기록되고 있다.

2. 《山海經》, 《詩經》, 《淮南子》 등의 書籍에서부터 眼科藥物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으며, 眼科病症에 대한 기록은 《詩經》, 《尚書》 등으로부터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黃帝內經》에서 눈과 臟腑·經絡과의 관계, 解剖生理, 病因病機, 臨床證候 및 針刺治療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神農本草經》에서 眼科에 사용되는 藥物을 약 72종 기재하고 있으며, 《傷寒雜病論》에서는 20여종의 全身性眼證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兩晉 및 隋唐五代에 眼科에 대한 書籍으로는 《諸病源候論》은 眼病과 全身疾病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고, 《千金要方》은 眼病의 예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外臺秘要》는 최초로 金針을 사용하여 內障治療를 언급하였으며, 《龍樹眼論》은 인도의학의 영향을 받아 眼科發展에 커다란 영향을 준 서적이다.

5. 《留青日札摘抄》와 《文房器具箋》에서 眼鏡의 사용은 ' '이라고 하여 宋代 또는 明代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6. 元代의 倪維德은 《原機啓微》를 저술하여, 病因病機에 따라서 眼證의 분류를 18종으로 하여 임상병증론치에 편리하게 하였다.

7. 王肯堂의 《證治準繩·七竅門》에 眼科專篇에 眼의 八方配位와 生理病理 및 凝脂翳, 物損眞睛 등을 기술하여 眼科臨床에 一助하였고, 傳仁宇가 編選한 《審視瑤函》은 金針撥障術, 眼病外治法, 針法, 術全洗眼, 手術方法, 手術後의 看護, 小兒目病과, 眼科針灸, 眼科手術器具를 설명하였고, 眼科針灸要穴을 그림으로 說明하여, 眼科歷史上 價値있는 專門書로 평가되고 있으며, 黃庭鏡이 著述한 《目經大成》三卷은 五輪八廓學說의 發揮와 針撥述의 繼承整理와 病歷의 상세한 기록과 獨창적인 病名이 많다.

### 參考文獻

1. 裴秉哲 編譯, 黃帝內經, 成輔社, 1994
2. 金學主 譯解, 老子, 明文堂, 1995
3. 金學主 譯解, 墨子, 明文堂, 1995
4. 車柱環 譯解, 孟子, 明文堂, 1995
5. 鄭長澈 譯解, 荀子,
6. 柳正基, 四書三經, 明文堂, 1993
7. 朴一峰, 山海經, 育文社, 1995
8. 李時珍, 本草綱目,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9. 丁光迪主編, 諸病原候論校註, 人民衛生出版社, 1994
10. 孫思邈, 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1996
11. 王道,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1955
12. 孫思邈, 銀海精微, 人民衛生出版社, 1957
13. 倪維德, 原機啓微, 見薛氏醫案

14. 葆光道人撰, (秘傳)眼科龍本論, 人民衛生出版社, 1958
15. 傅仁寧撰, 審視瑤函,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16. 鄭苑等撰, 一草亭日科全書, 見中國醫學大成
17. 黃庭鏡撰, 目經大成
18. 顧錫撰, 銀海指南, 見中國醫學大成
19. 陳滋撰, 中西眼科匯通, 上海眼科醫學院, 1936
20. 童紹甫編, 眼科學, 見中國醫學院
21. 康維栒撰, 眼科菁華錄, 傷害千頃堂書局, 1935
22. 康由之主編, 中醫眼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5
23. 廖品正, 中醫眼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2
24. 祁寶玉主編, 中醫眼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5
25. 姚芳蔚, 實用中醫五官科手冊, 上海科學教育出版社, 1996
26. 莫一凡, 中華睛明技法, 中醫古籍出版社, 1996
27. 申天浩編譯, 問答式五官科學, 成輔社, 1992
28. 林鐘國著, 鍼灸治療學, 集文堂, 1983
29.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出版社, 1984
30. 龔廷賢著, 壽世保元, 宏業書局, 中華民國75年
31. 張潞著,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 1991
32. 吳謙, 醫宗金鑑, 人民衛生出版社, 1992
33. 王肯堂, 證治準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34.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中國醫學史, 1997
35. 謝觀 等編, 中國醫學大辭典, 中國書店, 1990
36. 孫一奎編著, 赤水玄珠, 中國醫藥出版社, 1996
37. 李冀, 李笑然主編, 普濟方注錄, 黑龍江科學技術出版, 1996
38. 趙信等,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92
39. 張景岳, 景岳全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40. 王叔和, 脈經, 癸丑文化社, 1985
41. 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9
42. 李梃, 國譯編注醫學入門, 南山堂, 1981
43. 王林隱等編, 太平聖惠方,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44. 危亦林編, 世醫得效方,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45. 張子和, 儒門思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46. 李杲, 蘭室秘藏, 人民衛生出版社, 1957.
47. 朱震亨, 丹溪心法,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